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소비자 용자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
- Bloomberg: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우선 지켜보겠다”

[미국 금융]

- CNNBusiness: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상승에 증시 하락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교통 혼잡세 9달러로 승인
- Bloomberg: 뉴욕, 22년 만에 최대 가뭄... 이번 주 비가 오지만

[주택]

- Bloomberg: 남부 허리케인 여파로 미 주택 착공률 3.1% 하락
- Bloomberg: 미 주택 건설 지수, 미 선거 후 7개월 만에 최고치

[오일]

- WSJ: 유가 하락... 수요 우려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커
- WSJ: 석유 대기업들이 규제 철폐에 관심이 없는 이유

[인공지능]

- WSJ: AI 투자 호황... 벤처 기업 수익은 최악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연말 쇼핑 시즌... 월마트 등 소매업체 순조로운 출발
- Bloomberg: 네슬레, 커피 가격 인상하고 용량 줄인다
- CNBC: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터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Credit Is Harder to Access as Rejection Rates Rise, Fed Survey Shows

연준 “소비자 용자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

- 지난 10여년 이래 자동차 용자와 모기지 용자 등의 신청 거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미 소비자들이 크레딧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 뉴욕 연준에 따르면 소비 수요가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크레딧 용자 신청 거부율이 올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구체적으로 신용 카드, 모기지, 자동차 용자, 크레딧 카드 한도 연장 신청, 모기지 재융자들의 거부율이 올해 상승했다.
- 올해 관련 거부율은 21%로 작년의 20.1% 보다 높았고, 팬데믹 전의 17.6% 보다 훨씬 높았다. 신용 점수가 680 아래인 경우 거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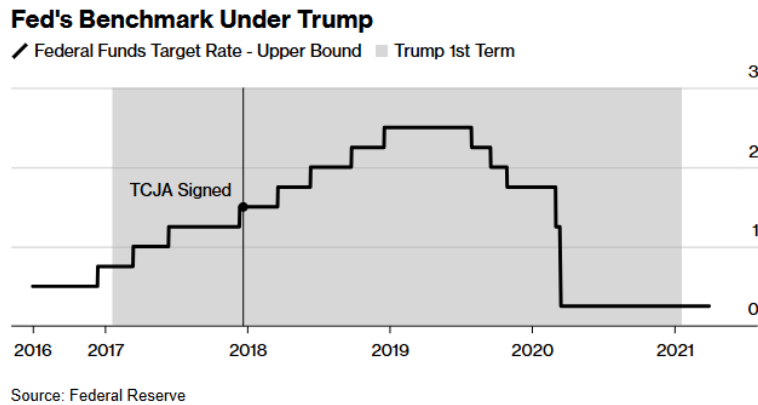
이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owell's Wait-and-See on Trump Policies Is a Switch From 2016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우선 지켜보겠다”

- 연준의 파월 의장은 연준이 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전에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추측하지도, 추정하지도, 가정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 이는 지난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준의 반응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 당시에는 행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를 연준의 예측에 반영했다.
-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에 연준은 트럼프의 감세 공약이 통과될 것으로 가정하면서 성장을 위한 재정적 부양을 예측했으며, 이는 일부 높은 금리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파월은 개인 소득세 인하를 가정하고 2017년에 세 차례 0.25%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금리 전망을 변경했다고 말했었다.
- 그러나 이제는 파월 의장이 2016년에 비해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다. 금리 인하 폭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관세, 이민 정책의 경제 여파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Global stocks drop amid heightened Ukraine-Russia tensions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상승에 증시 변동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증시는 화요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 다우존스는 개장이 시작되면서 4백포인트 떨어졌고, 추가로 떨어지다 현재 반등 중이다. S&P 500과 나스닥도 개장 초기 하락에서 회복 중이다.
- 이 같은 개장 초기 매도세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내 타격 목표물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허용한 후에 러시아가 핵 정책을 변경한 후에 이어지고 있다.
- 투자자들은 안전 투자인 금과 국채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금값은 크게 급등하고 있고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s Transit Agency Approves \$9 Congestion Toll 뉴욕시 교통 혼잡세 9달러로 승인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폐지하겠다고 위협한 맨해튼 혼잡세 방안을 MTA 이사회는 12대 1의 표결로 승인했다.
- 피크 시간대에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E-Z 패스 승용차의 교통 혼잡세는 9달러로 책정됐다. 트럭은 14달러이다.
- 이 요금은 주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물론, E-Z 패스 없는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링컨 센터, 홀란드, 퀸즈 미드타운 등에서 통비를 낸 경우 피크 시간대에 할인을 받는다.
- 택시 승객은 0.75달러를 내야 하며, 우버와 리프트 승객의 경우 1달러 50센트를 지불한다.
- 이 재원으로 마련된 150억불은 100년 이상 된 대통 교통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York's Worst Drought in 22 Years to Persist Despite Rain This Week 뉴욕, 22년 만에 최대 가뭄... 이번 주 비가 오지만

- 이번 주 뉴욕시와 미 동북부에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진행된 가뭄을 해결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 수요일부터 뉴욕시, 뉴잉글랜드, 보스턴 지역에 1인치에서 1.5인치의 비가 올 예정이다. 중서부와 캐스킬 마운틴 일부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오늘 화요일 뉴욕시는 2002년 이후 첫 가뭄 경고를 내렸다. 뉴욕시로 물을 공급하는 델라웨어 수로 보수공사(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연기했다. 주민들에게는 물 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를 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Bloomberg: US Housing Starts Slide 3.1% as Hurricanes Impact South Region****남부 허리케인 여파로 미 주택 착공률 3.1% 하락**

- 허리케인으로 주택 건설 공사 지연이 확대되면서 10월 미 주택 착공이 지난 3개월 중 가장 느리게 진행되었다.
- 주택 착공은 10월에 연 3.1% 줄어든 131만채였다. 특히 허리케인 여파가 심한 남부 지역이 착공률이 줄었다.
- 이 지역은 허리케인 Helene과 Milton의 여파로 착공률이 8.8%로 지연됐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omebuilder Sentiment Reaches Seven-Month High After Election**미 주택 건설 지수, 미 선거 후 7개월 만에 최고치**

- 미 주택 건설 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 때문이다.
- 미 주택건설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와 웰스 파고의 주택 시장 상황 지표는 이번 달 3포인트 상승한 46을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예상치를 초과한 수준이다.
-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율은 예비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2007년 경제 침체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이어졌다. Pantheon Macroeconomics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Samuel Tombs는 현재 6.86%인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6%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건설업체들은 수요를 올리기 위해 모기지율을 낮춰주는 판매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미 주택건설자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체 60%가 판매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고, 건설업체 31%가 주택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평균 주택 가격 인하율은 5%였다.

Bloomberg 기사

[오일]**WSJ: Oil Prices Slide as Demand Concerns Outweigh Geopolitical Worries**

유가 하락... 수요 우려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커

- 유가가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0.6% 하락한 배럴당 72.88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7% 하락한 배럴당 48.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월요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반등했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과 반대로 약한 글로벌 수요 때문에 다시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WSJ 기사

WSJ: Why Big Oil Doesn't Mind Big Regulation 석유 대기업들이 규제 철폐에 관심이 없는 이유

-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석유 및 가스 시추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주말 동안 트럼프는 화석 연료 옹호자인 Chris Wright를 에너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는 석유 대기업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
- 예를 들어 메탄 배출 규제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규제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지만, 흥미롭게도 Exxon Mobil과 TotalEnergies는 해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 왜냐하면 엄격한 규제를 지키기 힘든 작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메탄 배출을 많이 한 PDC Energy와 Callon Petroleum은 그대로 대기업에 인수됐었다.
- 즉,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석유 대기업에게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 Factset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임기 동안 S&P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 산업 지수에 속한 상위 4개 기업은 3300억 달러 이상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free cash flow)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91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었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AI Investments Are Booming, but Venture-Firm Profits Are at a Historic Low

AI 투자 호황... 벤처 기업 수익은 최악

-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들이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투자 수준에도 불구하고 M&A나 주식 상장(IPO)이 거의 없다.
- 원래 스타트업들은 창업 몇 년 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벤처 기업의 투자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 또한 Coatue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평가 받은 14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Coatue는 이들 모두가 상장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 M&A는 규제 당국의 제재로 거의 중단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어도비는 디자인 스타트업 Figma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 규제 당국의 제재로 취소했다. 벤처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 시장을 지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 작년 미국 벤처 기업들은 600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 PitchBook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다.
- 동시에 지난 3년은 벤처 기업의 투자 총액이 가장 많은 해였다. 대부분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이 분야는 평가액이 급격히 상승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현금 소모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almart Earnings: Holiday Shopping Is Off to a Strong Start
연말 쇼핑 시즌... 월마트 등 소매업체 순조로운 출발

- 연말 쇼핑 시즌이 순조롭게 출발했다.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올해 매출과 이익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분기 동안 미국 내 매출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월마트의 글로벌 온라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고, 전 세계 매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소매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아마존은 매출이 작년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식료품 같은 일상적인 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월마트 CFO John David Rainey는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Nestle Will Lift Coffee Prices, Shrink Bags as Beans Get Pricier
네슬레, 커피 가격 인상하고 용량 줄인다

- 세계 최대 커피 제조업체 네슬레가 커피 원두 가격 상승 때문에 커피 가격을 인상하고 제품 용량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스턴트 커피 (instant coffee)와 캡슐 커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브라질과 베트남 같은 주요 공급국에서 발생한 날씨 문제로 수확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커피 가격이 급등했다. 아라비카(aribica) 원두 선물 가격은 올해 약 50% 상승했고, 로부스타(robusta) 원두 선물 가격은 약 65% 상승했다.
- 네슬레는 브랜드 투자와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에 힘쓰고 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네슬레 대변인은 단일 서브 믹스와 리필 제품 등 다양한 가격대의 패키지 크기를 제공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Microsoft introduces PC that has one job: connect users to their computers in the cloud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터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과 파일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Windows 365 Cloud Link를 공개했다. 윈도우 클라우드 엔드포인트(endpoint) 제품 책임자 Jallen Ringer는 해당 컴퓨터가 간단하고 안전하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 해당 컴퓨터는 인텔 칩이 장착되어 있고, 8GB RAM과 64GB 저장 용량을 제공한다. 무게는 1파운드 이하이다. 펍(puck) 형태의 패키지는 책상 위에 놓거나 모니터 뒤에 장착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마케팅 부서 임원 Melissa Grant는 해당 컴퓨터가 경량 단말기(thin clients)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량 단말기는 대부분의 처리와 저장을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수행하는 장치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미국 국채-회사채 금리차 역대급으로 작아...'신용버블' 경고 "펀더멘털 좋아 우려할 수준은 아냐"

미국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간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레드'가 역대급으로 작아졌다.

스프레드가 작아질 경우 기업이 차입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 데다 리스크는 감춰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 15일 기준으로 미국 국채와 투자 등급 회사채 간 금리 차가 78bp(1bp=0.01%포인트)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